Q 북한은 남침의도를 어떻게 위장했는가?

A 모스크바 방문에서 돌아온 후 1949년 3월부터 김일성은 장차 추진할 남침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정치적 실권을 자신의 빨치산파에 집중시킴과 동시에 1년여 이상 남침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전쟁도발을 눈앞에 둔 1950년 5월 말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전선)을 결성한 후 남한사회에다 수용 불가능한 남 · 북한 평화통일안을 제시하는 등 도발을 위한 위장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북한의 연막술책은‘ 조국전선 ’이 공식적으로 창설되기 전인 6월초부터 이미 각종 언론매체들을 동원해 조국전선의 창설을 선전함으로써 시

1949년 6월 25일부터 5일간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개최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 주석단 앞줄 오른쪽 부터 백남운, 김달현, 허헌, 김일성, 김두봉, 박헌영, 김책

작됐다. 북한정권이‘ 조국전선 ’을 결성한 동기는 그것이 비정치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조직을 통해 현실성 없는 평화통일안을 제안하면 남한정부는 분명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도발의 대내외적 정당성 획득과 전시 동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중의 목적 때문이었다.

‘ 조국전선 ’은 결성 당시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안을 남한 측에 제시했다. 이 제의는 한민족 스스로가 노력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한 미군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철수시키고, 통일적 입법기관 선출을 위한 남 · 북한의 선거를 평화통일을 원하는 남북의 민주주의 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북한은 자신의 제안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방책 선언지지 궐기대회를 획책했다. 함경북도만을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3,500여 회에 걸쳐 39만여 명을 동원해“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 ”는 선전을 대내외적으로 전개했다.

북한의 이 제안은 남 · 북한 정부와 기관들이 선거준비를 지원하되, 결과에 따라 기존의 두 정부를 동시에 해체하고 신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남 · 북한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도 있었고, 동시에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결성식에서 선언서의 초안을 읽고 있는 대표들 (1949년 6월 25일 평양)

는다는 뜻도 내포돼 있었다.

이 제안에 숨겨진 속셈은 뚜렷한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무력침략을 감행할 경우 민족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여론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민족자결원칙에 따른 의회를 구성할 남·북한 총선거 제안으로 연막을 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이 제시한 것은 만약 북한의 제안대로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조건, 전체 의석 등에서 남한 측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이 점을 내다보고 사전에 남한정부가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한 계획적이고 허구적인 평화공세였을 뿐이다. 한마디로 남한이 평화적 통일제의를 거부했으니 무력수단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논리로서, 전쟁도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침략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연막전술에 지나지 않았다.

애초부터 김일성은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맹목적인 군사무력통일 지상주의만을 고집하지 않았던가! 김일성은 오로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일념에서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 받았다. 그리고 귀국 후 전쟁계획 시나리오에 따라 그간에 준비해오던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격개시 직전까지 사단급 기동훈련 실시, 북한군의 38도선 지역으로의 전진배치까지 완료했다. 동시에 그는 남침도발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와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어수선한 남한 정국을 틈타 남한정부 지도자들이 전쟁도발 시기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저의를 감춘 평화 연막공세를 폈던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1. 북한이 ‘평화통일’안을 제시한 속셈은 무엇이었나?